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진행된 생명나눔 천도재는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특히 육군사관생도들도 동참, 나라를 지킨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웃·나라 위해 목숨 바친 의인 왕생극락을

〈義人〉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⑥

생명나눔천도재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회와 타인을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의 왕생극락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30회 생명나눔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는 장기기증자의 영가를 축원하는 자리이자, 순국선열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생도 6명이 동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매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생명나눔천도재는 사후시신과 장기기증 등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며 생을 마치고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을 기린다.

2017년부터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 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특별히 날짜도 현충일로 바꿔 순국선열과 6·25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생도들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봉행하고 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6·25전쟁 때 불암산에서 활약하던 육군사관생도들로 육군사관학교 1, 2기 생도 13명과 병사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불암산에서 유격대를 결성해 북한군에 끌려가던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서 천도재
생명보시 · 순국선열 영가 등 400위
육군사관생도들, 유격대 정신 기려
"자비나눔 실천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천도재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군과 경찰 등 호국영령과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 등 모두 400여 명의 영가를 모셨다.

이날 천도재는 시련과 대령, 법문, 상단불공, 영가천도 의식 등 3시간가량 진행됐다. 본격적인 천도재에 앞서 경기도 무형문화유산 살풀이 이수자이자 승무 전수자인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극락무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극락무는 긴 대나무에 흰 창호지 술을 양쪽 끝에 달아 슬픔과 한을 온몸으로 풀어내 잡귀의 근접을 막아 저승길을 닦아내는 춤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님들이 독송한 회심곡에 따라 동참자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헌다를 하는 동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독송소리를 타고 불암사 경내를 장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법문에서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났던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소개했다. 이어 기증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천도재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스님은 또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천도재에 함께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6명을 매우 반긴 김병주 국회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임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전투에 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구하고 작렬히 죽음을 맞은 이들의 뜻을 기리며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는 불암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극락무를 펼쳐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호국영령과 장기기증자, 의인 등 모두 400여 명의 영가를 모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천도재에 동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뜻을 기렸다.

일면 대종사 현충일 천도재 법문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부운자체본무실(浮雲自體本無實), 생사거래역여연(生死去來亦如然), 독유일물상독로(獨有一物常獨露), 담연불수어생사(湛然不隨於生死)"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또 이 세상을 하직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고 반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늘의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도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식과 형제 인연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면, 다음 세상도 인연법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윤회하는 과정에서 잠시 만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구름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 떠나는 것, 구름이 있다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용기와 기백이 있지만 70세, 80세가 되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업으로 인해 우리는 끝없이 윤회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 업을 멸하기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천도를 합니다. 인연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함께 기원 올립시다. 그 역시 좋은 업을 쌓고 훗날 좋은 데로 가는 복을 짓는 것입니다.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30년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가정의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30th Anniversary 1994-2024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